

용서, 내 몫이 아니다

김밥집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내 차례가 네 번째다. 점포라고 해봤자 두어 평 남짓하다. 앉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없고 그나마도 아침나절만 장사한다.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1톤 화물 트럭으로 장사를 하기도 때도 없이 나오는 구청 단속에 하는 수 없이 점포를 얻었다고 아내에게 들었다.

열어 놓은 창문 안에서 아주머니가 바빠 움직인다. 비닐장갑을 끼고 밥통에서 흰쌀밥을 한 움큼 꺼내 김 위에 조물조물 펼친다. 색색들이 나물을 펼친 밥 위에 얹는가 싶더니 어느새 도르르 말고 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잠을 설쳤는지 나부대대한 얼굴에 깨스른한 피곤이 잔뜩 끼어 있다. 푼더분한 몸이지만 김밥을 말고 여미고 자르는 손길이 맵차다. 눈 감고 떡 써는 석봉 어미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김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님과 인사하며 주문을 받으면서도 석독석독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찍어낸 듯 똑같은 크기의 김밥이 가지런하다.

등산 가면서 김밥을 사기는 처음이다. 언제 산에 간다고 한마디만 해놓으면 아내는 시래깃국을 보온병에 담고 밥과 반찬은 찬합에 넣어 주었다. 점심때만 되면 사람들은 은근 슬쩍 다가와 같이 먹길 원했다. 술이라도 마셔 깜빡 잊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눈 비비면서도 일언반구 군소리 없이 준비해 준 아내였다. 그런 아내였지만 오늘은 차마 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도 없었다. 아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끙끙거렸다. 옆치락뒤치락 주춤했지 못하고 땅이 꺼지라 긴 한숨을 토해내기를 반복했다. 보름달같이 뽀얀 얼굴이 복스러워 젊을 때부터 부잣집 만며느릿감이라 이야기 들어왔던 아내의 모습은 밤새 반쪽이 되어 깊은 고랑이 패 있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내 차례다.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본다. 손을 들어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벌려 보인다.

입이 쓰다. 말하는 것도 귀찮다.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싫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며칠 동안 입을 닫고 살다시피 했다. 다 합쳐도 열 마디쯤이나 될까 싶었다. 어느새 아주머니는 두 줄로 만 김밥을 은박 포일에 둘둘 말아 시커먼 비닐봉지에 담는다. 여분의 단무지와 나무젓가락을 비닐봉지에 함께 넣어 유리 벽 밖으로 팔을 쭉 내민다.

동서울터미널에서 2시간, 다시 택시로 30분을 달려왔다. 생각 같아서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깊고 깊은 골짜기와 등성을 몇 날 며칠이고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헤매고 싶었다. 몇 번 왔던 산이지만 혼자 오기는 처음이다. 인적 없는 등산로는 수목으로 그린 산수화를 보는 듯 고즈넉하다. 일부러 한갓진 이곳까지 왔다. 서울 근교의 산들은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끔, 몸을 꺾충 까불러 배낭의 어깨끈을 추스른다. 에휴,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깊은 한숨부터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가 무

표정한 얼굴로 나불나불 소식을 전했을 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거나 해외토픽 같은 판 세상 이야기로 치부했었다. 그런 일이 딸에게 일어났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염색한 머리였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다. 일없이 몇 해 지나자 중늙은이로 변해갔으나 그러려니 했다. 딸자식 둘 다 제 앞가림은 하는 터라 큰 걱정도 없었다. 푼푼한 생활은 아니더라도 그냥저냥 2막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싫었다.

3일 전이었다. 그날따라 오라는 곳도 갈 곳도 마뜩찮았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고 있을 때 대학병원 간호사로 있는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를 귓가에 가져가면서도 마음이 가우똥거렸다. 결혼하기 전부터 새치름한 큰딸에게서 직접 연락해오는 일은 드물었다. 더군다나 아내가 전화해도 잔뜩 짜증을 내는 근무 시간이었다.

아빠 예은이가 좀 다쳤어. 지금 우리 병원에 있어.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어디가? 얼마나? 하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 나갔다. 아냐 아냐 그냥 조금.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 없는 덩덤한 큰딸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심장 약한 아내가 놀랄까 싶어 내게 연락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말았다. 병원을 가면서도 별일 아닐 것이라고 아내를 다독였다.

아 발목이라도 빠였는가 보지. 크게 다쳤다면 아무리 제 언니 병원에 있다고 서울까지 왔겠어? 음성에서 가까운 충주나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야지. 그리고 어디 놀러간 것도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랑 함께 간 연수에서 뭘 일 있으려고. 말을 하면서도 새하얀 면사포의 신부가 절뚝거리며 입장하는 모습이 연상되어 아내 모르게 야릇한 미소까지 지었다.

둘째 딸은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결혼이었다. 널모레 서른이면 했어도 진작 했었어야 하지만 하 수상한 세태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딸은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3개월째였다. 겉으로는 세심하지 못하다고 딸을 올려대며 타박했으나 즈음의 세상에 크게 흠 될 것도 아니라고 자조했다.

한편으로는 제 나름의 꿈이 있으려니 하고 딸을 믿었다. 딸에게서 아이의 아빠에 대해 전해 듣고는 흑시나 했던 기우가 그럼 그렇지로 변하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의 아빠는 몇 달 전에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겉으로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아닌 체했지만 병원을 들어서면서부터 내 가슴은 거칠게 두방망이질 쳤다. 새하얀 팔뚝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8번과 9번 갈비뼈골절로 복대를 친친 감고 있는 딸은 눈언저리와 도도룩한 광대뼈는 부어올라 새파랗다 못해 시커멓고 몸 곳곳은 얼룩얼룩 피멍투성이었다. 팔다리와 등은 잘못 구워져 금 간 도자기처럼 온통 굵히고 찌혀 있었다. 아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깨물며 침대 난간을 부르짖고 가까스로 버텼다.

등산로 초입부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햇살 비치자마자 배낭을 둘러매고 나왔다. 밤새도록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바장였다. 차라리 곤드라지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목구멍까지 술을 붓고 또 부어도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눈꺼풀 안에서 모래알이 뭉텅이로 굴러다닌다.

제 자식 다 곱다지만 둘째 딸은 참으로 예뻐다. 평균보다 적당히 큰 키에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했다. 암팡진 만큼이나 철저히 제 욕심부터 차리는 언니와 다르게 둘째는 어릴 때부터 너울가지가 좋아 주변엔 친구들이 향시 들끓었다. 커서는 아비라도 늙은 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애교가 넘쳤다. 대학 또한 내로라하는 곳은 아니어도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그런대로 이름깨나 오르내리던 곳을 나왔다. 일찌감치 눈을 낮춰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도 했었다. 한마디로 손 갈 곳이 없었다.

상견례에 앞서 사윗감이 집으로 인사를 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더 놀랐다. 키가 작아 고2 때 운동을 그만두었다는 사윗감은 농구를 하기에는 작은 키였는지 몰라도 내가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현철민특했다. 다부진 체격에도 얼굴은 곱살하여 서글서글한 눈매는 절로 사람을 끌어당겼다. 운동하던 몸이라서 소방관이 적성에도 잘 맞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땐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7년의 가뭄과 홍수가 몰아쳐도 제 처자식만큼은 너끈히 지킬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차마 내색할 수 없었지만 와락 안아주고 싶었다. 아들도 없겠다 아들 삼아 함께 살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었다.

둘째 딸은 몇 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더 높은 직급과 더 많은 연봉을 보장받는 조금 더 큰 회사였다. 아직 중소기업 티를 벗어나진 못했어도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회사였다.

그런 딸이었는데……. 예휴. 이놈의 한숨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아직 중턱도 오르지 않았는데 숨이 턱턱 목구멍에 받친다. 숨을 내쉴 때마다 채 삭지 못한 술이 위액과 뒤섞여 부글부글 괴어올라 시고 쓰고 뚝은 바람을 만들어 목젓과 콧구멍을 녹일 듯 찢러댄다. 걸음을 늦추며 잠깐 숨 돌릴 곳을 휘살핀다. 저만치 몸집을 땅에 박고 평퍼짐한 뿌다구니를 내밀고 있는 바위가 보인다. 바위에 엉덩이를 걸친다. 엉덩이가 서늘하다. 공기는 포근해도 겨우내 얼었던 바위가 데워지기에는 아직 별이 약한가 보다.

큰딸의 입을 통해 둘째 딸이 겪은 일을 들으며 참담함에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다.

워크숍을 간 곳은 충북 음성의 방갈로였다. 2박 3일 일정 중 둘째 날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3일째는 아침만 먹고 돌아올 계획이었으니 마지막 행사인 셈이었다. 캠프파이어를 하기 전부터 벌인 술잔치에서 딸아이를 포함해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권했다. 딸은 적당히 요령껏 마셔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마신 술은 만만찮은 양이었다.

강한 요기를 느껴 화장실을 가는 도중 참지 못하고 근처 숲으로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곳에서 화장실이 있는 건물까지는 상당한 거리였다. 불일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 딸아이를 덮쳤다. 딸은 온몸을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배 속에 아이가 있다고, 다음 달에 결혼할 것이라고 사정사정했으나 허사였다. 겁탈 후 놔둔 딸을 강제로 방갈로까지 끌고 갔다. 방갈로는 산의 지형에 맞춰 한 동씩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문만 닫으면 고함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캠프파이어 후 방갈로에 딸린 노래방에서 뒤풀이 계획이 있었다. 놔둔 흑시라도 딸아이를 찾을까 봐 상담 중이라고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얼마나 간악하고 난폭했으면 갈비뼈까지 부러졌을까. 지금도 딸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내 심장을 꼬챙이로 찌시고 후비는 듯 가슴이 아리다. 꿈, 몸을 일으키자 무릎에서 싸릿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복잡한 머릿속에 발걸음은 바람 빠진 공처럼 터덜터덜 거린다.

새하얀 드레스에 순백의 면사포를 쓴 딸은 분명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될 내 딸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사윗감은 또 어쩔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말로만 듣던 선남선녀가 내 딸과 사위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과 사윗감이었는데……. 수십 수백 개의 바늘이 내 가슴을 찌르고 할컹다.

어제 딸아이를 능욕한 놈이 변호사를 앞세워 찾아왔다. 알고 보니 부장이라는 놈은 사장의 푸네기였다. 놈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당장 놈의 멱통을 딸 듯 달려들었다. 변호사가 막아서지 않았어도 놈은 내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나이 들었기로서니 놈의 숨통을 끊는 것은 순식간에 해치울 자신이 있었다. 군대 있는 3년 동안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반복했었다. 뱃가죽에 뒤룩뒤룩 비겡덩이를 붙이고 있는 놈의 목뼈를 비틀어 요절내는 것은 눈 깜짝하기도 전에 할 수 있었다. 입으로는 개개비는 척 나불거렸지만 번지르르한 얼굴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빛은 전혀 없었다.

배 속의 아이는 무사하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참으로 대책 없는 일이다. 사윗감에게는 아직 이 핑계 저 핑계로 미적거리며 알리지 않았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어도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인가. 아무리 딸아이의 잘못이 아니라지만 결혼할 수 없다고 한들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딸은 싱글맘이 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 이미 청첩장이 인쇄되어 멀리 있거나 서름서름한 일가붙이에겐 우편으로 부쳤고 가까운 지인과 일가는 전화로 알리는 중이었다. 모두 부러워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아내와 내 면목이야 늘어가는 마당에 감내한다 쳐도 딸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딸의 배 속에서는 꿈틀꿈틀 생명이 움트고 있다. 축복받던 사랑의 열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애물이 되어버렸다.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어찌어찌 아무 일 아닌 듯 결혼하더라도 걱정이다. 딸은 평생을 죄인처럼 웅송그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제 와 무를 수도 하자니 가슴을 옥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병상에 널브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딸은 목숨이라도 버릴 양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을 닫았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링거의 수액만이 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어찌면 정말 죽고 싶었을 것이다. 몸의 상처야 시간이 낮게 해준다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못할 것이다. 아니 살아있는 동안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덮고 싶어도 덮이지 않는 화인으로 남아 진저리치게 할 것이다.

딸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제 엄마와도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비이슬 머금은 듯 싱그러운 딸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파리하니 거친 피부에 초점 없이 쾅한 눈으로 허공만 끔벅이고 있다.

헉헉, 이제 다 올라왔다. 심장은 제 맘대로 폭죽을 터뜨리며 받은 숨을 꾸역꾸역 게워낸다. 입안과 목구멍은 갈라 터지기라도 할 것처럼 바짝 고드러진다. 기껏 1,200고지밖에 되지 않는데 다리가 풍 맞은 노인같이 후들거린다. 젊을 때는 완전군장하고도 하루 두 번을 오르락내리락했었다. 밑에서 볼 때 제 잘난 척 깎아지르게 빠죽빠죽 솟아난 바위츠렁이 발밑에 있다. 1,000m 가까운 고지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거기서 거기인 도토리 키재기처럼 울목졸목하다. 질푸른 물결로 출렁여야 할 나무바다는 잎이 없어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건 내 마음일까. 봉우리 밑을 안고 돌아 나부랑납작한 마당바위를 찾아간다. 수풀

과 바위에 가려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 산에 올 때마다 둘러앉아 점심을 먹던 장소다.

순식간에 김밥 한 줄이 없어진다. 빈속에 메마른 밥이 들어가니 위장이 꿈틀꿈틀 요동을 친다. 생수를 그득 따른다. 허끝에서부터 짜르르 지도를 그리며 식도를 흐른다. 생수통엔 물이 아니라 소주가 들어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쓰리고 아픈 가슴을 억누를 수 없다. 매일 들이붓는 술에 알코올로 찌든 몸은 이대로 미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에휴. 모든 게 내 탓이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은 격이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죄 없고 흠 없는 착하다착한 딸이 대신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모르는 채 살아왔다. 아니 가증스럽게도 잊고 있었다. 간악스러운 놈. 그런데도 먹고살 것이라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숨을 쉬고 뱃구레에 김밥을 집어넣는 손가락과 입과 코를 도려내고 싶다. 와락 펼쳐놓은 김밥을 옥여싸 패대기친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빨갱이들을 사주하여 나라를 전복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폭동이 반란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첩보에 의하면 북괴의 특수부대가 폭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암리에 잠입했다고 한다.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운명은 제군들의 손에 달렸다. 제군들을 믿는다. 출동 즉시 초전박살로 폭도들을 진압하여 나라를 구하고 공수부대의 명예를 살리기 바란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에 날 선 대대장의 연설이 바람을 갈랐다. 연대원 모두는 목적지도 모르는 채 도라꾸라 부르는 군용트럭에 몸을 실었다. 검푸른 호루(캔버스 천으로 만든 차량 덮개용 천막) 사이로 떠 있는 달을 보고 남쪽으로 향한다고 짐작했다. 한껏 실그러뜨린 얼굴로 거슴츠레 눈웃음치는 초사할 달은 간능스런 계집처럼 검은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몸을 숨기면서도 마지막까지 길잡이를 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작전 중 질문이나 대화는 금지되었다. 도라꾸가 기우똥 쿨렁거릴 때마다 희번덕이는 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야수의 눈빛이었다. 야수들은 하나같이 한 손에 총을 거머쥐고 있었다. 거칠게 나달거리는 호루의 끝자락과 발악하듯 괴성을 질러대는 도라꾸 엔진 소리가 침묵과 어둠을 지배했다. 우리는 도착하기 직전에야 도로에 세워진 이정표를 보고 목표물이 광주라는 것을 알았다.

도시는 자욱한 새벽안개를 뒤덮고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다. 이지러진 손톱달이 만든 어슴푸레한 박명이 어른어른 사물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덩그렁덩그렁 두부 장수의 방울 소리가 안개를 타고 너울거렸다. 타다다닥, 곤두선 신경에 거친 발소리가 종그린 꺾바퀴를 굴었다. 새까만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소년이 제 몸집만 한 신문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바쁘게 잔달음질 치고 있었다.

고적한 평화를 깨운 건 우리의 군홃발이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도시를 에워쌌다. 숨탄것 모두가 우리의 적이었다. 사람들은 폴짝거리는 토끼에 불과했다. 우리는 토끼 떼를 내몰아 한꺼번에 사냥했다. 처음부터 적수가 아니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요인을 암살하는 훈련을 눈만 뜨면 했던 우리였다. 흑한의 1월 이틀을 굶겨 산속에

떨어뜨려 놓는 생존 훈련에도 열흘 이상 살아남은 육체였다. 출동 직전엔 영문도 모르는 채 총정훈련이란 폭동 진압 훈련도 3개월 동안 받았다. 우리는 훈련한 대로 토끼의 팔다리를 분지르고 머리를 박살냈다. 피투성이 곤죽이 되어 널브러진 곳에서 풍기는 피 냄새가 우리를 더욱 도취시켰다. 환각에 빠진 우리는 더욱 잔인해져 갔다. 창자를 끄집어내 도로에 흩뿌려 도망치고 항거하는 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총칼을 앞세우고 장갑차와 헬기를 등에 업은 우리에게 시위대는 폭풍우를 가리겠다고 펼친 종이우산이었다. 우리는 철저히 유린하고 유린하고 또 유린했다. 도로 광장 캠퍼스 빌딩에 가정집까지 주검이 나뒹굴었다. 행복하는 자들은 안 죽을 만큼 짓밟아 굴비처럼 엮어 끌고 갔다. 저항력 없는 여자들만이 그런대로 움직이는 사지가 붙어 있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도시를 장악하여 점령했다.

내가 속한 대대는 학교를 접수했다. 학교는 숙소였고 상황실이었고 수용소였다. 식사는 부대와는 비교되지 않았다. 보리쌀을 절반이나 섞어 찐 거무튀튀한 찜밥은 거칠고 까칠까칠했었는데 새하얀 쌀밥은 자르르한 윤기에 달고 매끄러웠다.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던 소나 돼지가 목욕한 땃물로 끓인 고깃국이 식사 때마다 두툼한 살코기가 그득했다. 매일매일 잔칫상이었다. 토끼몰이에 앞장선 병사들은 작전만 마치면 훈포장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도시를 점령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소대원들과 저녁 식사 후 잔뜩 옥여넣은 포만감에 어기적어기적 숙소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야간 출동을 준비해야 했다.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 병장님! 김 병장님!”

저만치서 양 상병이 짤짤이를 끌고 휘뚱휘뚱 잔걸음 치며 다가왔다.

“김 병장님, 잠시만요.”

양 상병은 다짜고짜 나를 한쪽 옆으로 잡아끌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놈은 부대에서 독하고 악랄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바였다. 어떤 극한상황이나 위험에도 스스럼없이 몸을 던지는가 하면 선임에겐 삽살개처럼 꼬리치며 굽실굽실 알랑방귀를 후임들에겐 갖은 방법으로 구나방 짓을 일삼는 저승사자였다. 나와는 두 달밖에 차이가 없어 서로 은근히 기대는 언덕이었다.

“아, 씨발.”

양 상병은 담배를 꺼내 물며 욕지거리부터 지껄었다.

“왜? 마.”

“김 병장님 제가 말입니다, 방금 1호 차 운짱 만나고 왔거든요. 알잖아요, 1호 차 운짱이 저랑 훈련소 동기인 거. 제가 년 밤마다 어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이놈이 항상 새벽이나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낮에는 병 걸린 달구새끼처럼 꾸벅꾸벅 졸고 말입니다. 전 대대장이 밤에도 어디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가 싶었죠. 근데 글썸 뭐라는지 아세요?”

난 그저 눈만 꿈벅이며 듣고만 있었다. 놈은 말을 끊고서 연기에 얼굴을 찡그리며 담배를 연달아 빨았다. 입안 그득한 침을 뱉어내고 말을 잇는 놈은 좀 전과는 다르게 결눈질로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씨발, 대대장이 말입니다, 밤마다 빠구리 뜨러 다닌답니다. 니기미.”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대대장은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언젠가 한 번 보았던 명문 여대

를 졸업했다는 늘씬한 대대장의 아내가 어른거렸다. 작전 중 가족이 올 수도 없는데 누구와 빠구리 한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아마, 대대장이 빠구리를 뜨든 토끼뽕을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말은 시큰둥하게 했지만 빠구리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말초신경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찔거렸다. 바윗덩이도 씹어 먹고 소화시킬 젊은 청춘의 피는 용암같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쫓또 알고 보니 대대장뿐 아니라 중대장들도 돌아가면서 빠구릴 뜬답니다.”

양 상병의 말에 의하면 대대장은 저녁만 되면 병사들이 끌고 온 여자 중 젊고 해반드르르한 여자를 골라 1호 차에 태워 여관으로 간다고 했다. 대대장뿐이 아니었다. 대대장이 눈에 안 보이면 중대장은 눈치껏 여자를 하나씩 꺾치고 캠퍼스 이곳저곳 빈 건물에 들어가기를 며칠째라고 했다. 말을 하면서 내내 눈썹춤을 추며 두덜거리던 놈이 말을 마칠 때 쯤에는 느물느물 의미심장한 눈웃음으로 찢어진 눈가죽 끝을 씹룩거렸다.

“서.”

양 상병과 나는 길을 건넌 여자 둘을 총부리로 막아 세우고 눈을 부라렸다. 이미 여럿을 지나쳤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갓 스물을 넘은 반주그레하고 싱싱한 여자도 고르고 골랐다. 어마지두 깜짝 놀란 여자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을 휘둥글렸다. 사람의 눈알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눈알은 엉덩이를 비집고 나오는 달걀처럼 눈자위를 찢을 듯했다.

“너희들 어디서 오는 길이야?”

“우… 우리 지… 집에 가는 주옹이예요.”

여자들은 떠는 몸만큼이나 말을 다달거렸다.

“너희들 빨갱이지?”

“아… 아니예요.”

“그럼?”

“어… 엄마 시장에 일하는데 도… 도시락 가았다 주우고 지…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넌?”

“치… 친구… 예요. 애… 애가 무… 무섭다… 다고 해서 따… 따라 와… 왔어요.”

“민증 내봐.”

“…….”

“민증 몰라? 주민등록증. 민증도 모르는 거 보니 이년들 이거 빨갱이 맞네.”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주섬주섬 꺼내는 주민등록증을 낚아챘다. 머리 위에서는 만월을 향해 푹푹하게 속살 차오르던 달빛이 어롱어롱 비추고 있었다.

“김귀선. 오구공이일구… 전남 목포시… 너 목포에서 광주에 뭐 하러 왔어? 수상한 년인데?”

“하… 학생이예요.”

“학생? 어떻게 믿어? 잔말 말고 따라와.”

서슬에 놀려 마지못해 양 상병을 따르는 여자들을 뒤에서 쫓았다. 미리 점찍어 놓은 건물로 들어서자 서늘한 어둠이 눈을 가렸다. 헬리콥터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에 인근 건물은

오소리의 습격을 받은 벌집이 되어 갈기갈기 헤집어진 채 텅텅 비어 있었다. 손을 더듬어 3층으로 올라갔다. 예상과 다르게 문이 잠겨 있었다. 개머리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양상병과 나는 나란히 붙어 있는 사무실로 여자를 한 명씩 데리고 들어갔다. 쭈그러지고 휘어진 알루미늄 새시가 나달거리는 창문으로 5월의 봄바람이 선들선들 들이쳤다. 창문을 넘어온 부유했던 달빛이 만든 어둠의 그림자는 음침했다. 사무실은 온갖 파편으로 너저분했다. 일사불란하게 구르는 군화발과 쫓기는 자의 다급한 발걸음 때리고 맞는 비명이 뒤섞인 소란이 밤하늘을 쟁쟁 울렸다. 옆 사무실에서 거칠게 욕박지르는 양상병의 목소리가 갇힌 공기를 흔들었다.

“옷 벗어.”

“…….”

“어쭈, 빨갱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할 것 아냐. 씨발년아.”

철썩 철썩 뺨을 갈기는 소리가 깜깜한 건물을 메아리쳤다. 앞에 있는 여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작은 몸을 웅송그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아… 아저씨, 제… 제발 살려주세요.”

“이년이 누가 죽인데? 빨갱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니까.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빨갱이로 만들어 질질 끌고 가 죽여 버린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너 죽이고 빨갱이 죽었다고 하면 아무도 간섭 안 해. 오히려 우린 상 받는다니까. 알아?”

“우… 우리 아… 아무 잘못도 아… 안 했어요. 제발…….”

“쌍년이 그래도… 너도 재처럼 맞아볼래? 이걸 콕!”

손을 높게 쳐들고 당장이라도 후려칠 것처럼 으러방망이로 옥대겼다.

“자… 잘모… 못해… 했어요. 제발…….”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파리 손을 삭삭 비벼댔다. 옆 사무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움직임 버클을 끄르고 내려놓는 소리 쇠붙이가 부딪는 소리가 귓바퀴에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느닷없이 여자의 배꼽노리를 내갈겼다. 혁, 하는 파열음과 함께 여자가 고꾸라졌다. 헛심이라도 쓰는 양 푸덕푸덕하더니 앙다문 여자의 신음이 채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처럼 옆방에서 흘러들었다. 곧이어 씨암탉 알걸는 웅얼거림이 귓속을 간질였다. 마음이 급해졌다. 여자를 일으켜 책상 위에 눕혔다. 여자는 몸을 비틀며 도리질 쳤다. 온몸의 힘을 실어 주먹으로 여자의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내리쳤다. 주먹에 맞은 여자는 낭창낭창한 수양버들 가지에 맞아 사후경직에 이른 개구리처럼 부르르 떨며 킁킁댔다. 나는 서둘러 여자의 옷을 뜯어 내리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미친 듯이 썩었다.

그것은 내가 한 만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광주에서 철수할 때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너 여기 이름 주소 다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함부로 까 붙면 찾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확 죽여 버릴 거야. 김귀선 김선녀 이미정 강영옥 박미자. 지금도 또렷하게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무슨 생각인지 빼앗은 신분증을 전역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 버렸다.

충성!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목청껏 외치며 관디목질렀다. 부대원 전체는 돌아가며 포상

휴가를 받았다. 우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답례였다. 그때까지 난 내가 한 것이 얼마나 흉포한 짓인지 몰랐다. 바보 천치같이 휴가증 하나에 해낙낙하며 우쭐거렸다.

40년 전의 일이 불과 며칠 전같이 생생하고 생생하다. 생각할수록 자괴감만 든다. 이대로 내가 죽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몇 발자국만 떼면 벼랑으로 몸을 날릴 수 있다. 까마득한 높이지만 기껏해야 이삼 초면 바위에 닿을 것이다. 부딪치는 순간 내 몸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흩어지고 흩어져 더러운 몸뚱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면 좋겠다.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져 영원불멸의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을 주저하나. 죽을 용기도 없는 지지리도 못난 놈. 두 병이나 들이부은 소주에 배속은 불꽃이 이글거리는데 머릿속은 살바람에 차갑게 식어 잣개비가 풀풀 날린다. 누구를 탓하라. 인과응보다. 이미 벌어진 일 피할 수도 없다. 끄, 일어나자. 정신은 더없이 말짱한데 발걸음은 허공을 딛는 듯 제 맘대로 비칠거린다.

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차라리 평평 울며불며 울분이라도 토해냈으면 좋으련만 영영 세상과의 문을 닫을 듯했다. 옴나위없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더는 어찌할 방법조차 없어 비탄과 탄식에 잠겨 자포자기한 로맹의 조각품 다니이드의 모습이였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느님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착하고 착한 내 딸을. 썩을 놈. 내가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소. 바닥을 치며 녀드리하는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아이고 영감. 무슨 말이라도 해보소. 이제 우리 딸은 어떡한대요? 아내의 아이고땀이 귓가를 웅얼거린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열 번 스무 번 아니 수백 수천 번을 갈기갈기 찢겨야 할 놈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이제 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양심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용서조차 빌 수 없는 인간이다. 짐승의 탈을 썼다는 인면수심은 나 같은 놈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녀들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의 치욕과 상처를 잊지 못했을 것이다. 흑시라도 파릇파릇한 꽃나이에 강제로 부러져 이미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모르는 일이다. 어찌어찌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가슴속에 응어리진 응두리에는 아직도 피눈물이 맺혀있을 것이다. 때늦은 후회가 회한이 되어 가슴을 저미고 저민다.

나도 괴로웠다. 불쑥불쑥 잔상이 떠올랐다. 삼키고 싶어도 삼킬 수 없고 빼내려 해도 빼낼 수도 없는 목구멍에 걸려 있는 보리카락이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기에 하소연도 못하고 당나귀 귀라고 외칠 용기도 없었다. 꿇고 꿇은 머릿속은 야금야금 은결들어 갔다. 그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딸과 아내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인가. 가지 끝에 매달린 한갓 꿈이었으면……. 지금이라도 깨어나고 싶다.

굽이굽이 휘감긴 봉우리가 올망졸망 늘어서 있다. 먼산주름이 희뿌연 미세 먼지에 아련 풋하다. 서쪽 하늘에 뿔장 같은 검은 구름이 꾸역꾸역 몰려든다. 그렇잖아도 새무룩한 하늘이 잔뜩 째푸린다. 아직 해넘이가 멀었건만 사위는 삼시간에 어둑발이 뻗친다. 차라리 비라도 한바탕 퍼부었으면 좋겠다.

사죄라는 말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용서는 내 몫이 아니다. 이제라도 무릎 꿇고 고백하자. 간교한 무리들은 지금도 역박적박 은폐하여 되슬래잡고 있다. 그때의 만행을 바르짖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주머니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낸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의수를 한 듯 뻗뻗하다.

“네, 5.18 진상조사위원합니다.”

“저……. 즈…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끝-